

[신년부흥집회] 새 영을 부어 주소서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 / 2000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천5백년전입니다. 그 주변정세는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혼돈되어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앗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에스겔의 탄식

드디어 주전 598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갔고 32년을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잡혀간 지 5년만에 어느날 그는 그발강가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환란중에 우리는 그 환란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해석할 수 있다면 환란은 두렵지 않고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알게되고 죽을 때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 허둥대며 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알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까, 왜 우리는 포로생활을 해야하고 내 부인들은 강간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고민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숭배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나라인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과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고 민족적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혼돈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 부활이 있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부활과 회복이 일어나는지 네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회복의 시작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데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풀려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과 앗수르, 애굽을 징계하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려 보내 주십니다.

회복이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땅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첫 번째 징조는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재산을 모두 잃고 돼지 쪼임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부흥의 시작,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역이, 사명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가리라'가 곧 회개입니다. '내가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해도 종중에 하나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헌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수천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그들에게 회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시험도 들고 지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 속에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 고토로 돌아가는 마음, 이 세상과 짝하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지만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님을 알고 매일 매일 눈을 뜨면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할 곳입니다. 광야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정이라는 세상,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머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가락지와 새옷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옷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돼지를 치던 냄새나는 그 몸에 새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 안과 영 안에 더러운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로, 불로, 성령으로 모두 정결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정결해질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가지고 온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더러운 그릇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네 몸과 생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돈이 우상입니다. 권력과, 성공도,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이, 가정과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하고 정결해진 뒤에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결함을 입고 새 영을 받아야

어떻게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하셨다면 정결함을 입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나웠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돌이 많은 밭, 가시밭, 옥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옥토일때만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새 마음을 달라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음이 강박해질 위험이 많습니다. 점점 더 교활하고 굳어지고 종교적이고 심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해진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사 불이 임하여 마음이 다 녹고 부드러워져서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성령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26절에서 ‘새 영을 부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2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새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힘을 받기 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님은 사모해야 받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만사가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에게 빠지고 예수님에게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음성이 들리고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회복의 네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십시오. 강박한 마음이 풀어지고 고집스럽던 마음이 풀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